

# 포천시문화예술봉사단 11일 創團

## 전문 문화예술봉사단으로 역할 기대



포천의 27개 문화·예술 봉사단체들은 지난 11일 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포천시 문화예술 봉사단' 창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문화예술을 통한 자원봉사를 통한 자원봉사로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위해 포천시의 문화단체들이 앞장섰다. 포천의 27개 문화·예술 봉사단체들은 지난 11일 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창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장에서 '포천시 문화예술 봉사단' 창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는 식전 축하공연과 창단식, 식후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으며, 창단식에서는 봉사단 단장에 이희용 포천연극협회 회장이 취임식이 치러졌다. 포천시문화예술봉사단은 포천연극협회를 비롯한 27개 각종 문화예술단체의 관계자 300명이 참가한다. 봉사단은 앞으로 ▶지역내 외의 각종 행사 참여 지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방문 또는 관련행사 참여 지원 ▶시민과 문화로 함께 하고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을 통해 문화발전 ▶문화 예술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대외적 교류와 공연의 제반 사항 등 비영리 문화 봉사 등을 목표로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이날 문화예술전문봉사단 단장에 취임한 이희용 포천연극협회 회장은 "포천을 위한 문화예술 봉사단의 창단과 더불어 각 단체들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존중스럽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나누고 더불어 사는 마음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포천시문화예술봉사단은 고령자, 장애인, 장애인 자원봉사자를 위한 봉사활동 기회를 넓혀주고, 문화예술분야로 전문봉사단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인터뷰

포천시문화예술봉사단장 이희용

## “공연이 필요하다면 신청하세요”



이희용 단장 포천시문화예술봉사단

“포천의 전통적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겠다” 지난 11일 창단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출발한 포천시문화예술봉사단은 10개 분야 27개 동호인 500여명으로 구성됐다. 포천시문화예술봉사단 이희용(사진)단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었다. 이 단장은 구체적인 활동계획에 대해 이미 한화론도와 함께 경로잔치를 개최한 바 있고, 장애인의 날 5개 단체가 자원봉사에 나섰으며 1년에 4~5회 정도 봉사공연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불우시설 위문공연과 중·고3 수험생을 위한 공연도 8사단군악대와 포천중고 공연악단 등과 함께 준비중에 있다. 문화예술봉사단과 문화예술단체와는 관계에 대해 이 단장은 문화예술단체가 전문성과 예술성을 기반으로 하여 깊이있는 예술세계를 추구하는 단체라면 문화예술봉사단은 소외된 곳의 문화예술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열악한 장소라도 마다하지 않고 나서서 공연하기 위해 창단했다고 말했다. 포천시민이 요구하는 공연에는 봉사에 나설 것이며 자원봉사에 나서지 않는 회원단체는 함께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문화예술봉사단의 앞으로 활약상이 기대되고 있다.

이 단장은 포천시민들에게는 “포천이라는 지역이 인정이 많고 나눔의 정신 또한 강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며 “문화예술봉사단이 앞으로 이런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원봉사센터와의 관계에 대해 이 단장은 “자매결연 관계이며 특별히 다른 것은 문화예술봉사단은 순수기간자 자원봉사단체이며 자원봉사센터는 포천시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관리단체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 단장은 포천문화원과는 정신적인 면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포천에 총과는 해당 단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포천시문화예술봉사단의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연유치 의사를 자원봉사센터나 문화예술봉사단에 밝히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봉사에 나설 계획이다. 앞으로 단장으로서 각오에 대해서는 “사라져가는 포천의 정신을 바로 세우고 아름다운 우리민족의 나눔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포천의 중심적인 마음을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 문화예술봉사단장으로서 갖고 있는 단호하고 절실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명복 기자 best114@paran.com

## “우리멋 한마당 포천에서 세계로”

### 한국민속예술축제 시·도관계자회의

포천시는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준비를 위한 시·도 관계자회의를 지난 16일 포천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각 지방의 전래민속을 발굴 보존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문화관광부와 KBS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포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민속예술축제는 16개 광역시·도와 이북5도에서 각 1팀씩 모두 21개팀이 출전한 가운데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포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이번 각 시도 관계자들은 올해 축제에서 향토민속 원형의 재현과 민속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관광객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며 심사는 출연분야에 관계없이 종합평가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포천시는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준비를 위한 시·도 관계자회의를 지난 16일 개최했다.

## 미래의 지도자 마음의터 마련

### 31일 제12회 포천 어린이연극경연대회



한국연극협회 포천시지부(지부장 이희용)는 오는 31일 포천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제12회 포천 어린이 연극경연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연극협회 포천시지부(지부장 이희용)는 오는 31일 포천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제12회 포천 어린이 연극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연대회는 연극협회 포천시지부가 주최하고, 경기도포천교육청과 포천문화원이 주관하며, 포천시, 포천시의회, 포천예총, 포천문화원, 대진대학교, 포천중문의과대학교, 포천시자원봉사센터, 포천시문, 그린자등자문진전문학원의 후원으로 개최된다. 포천시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의 실제적인 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포천의 어린이들에게 협동심과 창의력 그리고 예술적 감각을 직접 경험하고 연극의 실질적 체험과 향유를 통하여 진정한 타인의 인생을 느끼는 것으로 발전하고 장래의 희망을 가슴에 품어 미래의 우리고장을 이끌어 가는 마음의 터를 마련하기 위한 행사다. 이번 대회에는 ▶왕방초등학교 ▶화현초등학교 ▶송우초등학교 ▶일동초등학교 ▶관인초등학교 등 5개 학교 팀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경연대회의 심사위원으로는 운운영 대진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이인철 킬러트(인인시대 이기수)연극·영화배우, 정한용 극단연우무대 대표 등의 연극계 저명한 인사가 초대된다. 김명복 기자 best114@paran.com

##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포천시의 날’

### 포천막걸리 등 전통주 시음 관광객 발길 모아

제3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포천시의 날’ 행사가 지난 13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이천시 공연장에서 펼쳐졌다.

문화관광도시로 새롭게 성장 발전하는 포천시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관광객과 어울리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무용단의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포천막걸리 등 전통주 시음과 포천시 관광홍보를 배부 등이 부대행사로 마련돼 관광객들의 발길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포천의 지역문화를 홍보하고 관광객들과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포천시의 날’ 행사를 구성했다. 행사, 이를 통해 21세기 세계 속의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포천의 이미지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제3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포천시의 날’ 행사가 지난 13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이천시 공연장에서 펼쳐졌다.

## 시민화합 이르는 종합축제 한마당

### 오는 22일 제19회 반월문화제 개최



포천문화원이 주최하고 포천예술인동우회가 주관하는 제19회 반월문화제가 오는 22일 포천종합체육관 및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다.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이 주최하고 포천예술인동우회가 주관하며 포천시, 포천시의회, 경기도포천교육청이 후원하는 제19회 반월문화제가 오는 22일 포천종합체육관 및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다. 반월문화제는 문화예술 발전의 기반구축 및 창작활동의 저변확대를 통한 시민의 화합 계기 마련, 학생들의 창작예술 표현을 통한 심성순화 및 자질향상 등 학생과 일반 시민이 대거 참여 하도록 함으로써 창의적인 소질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백일장, 사생, 서예, 사진촬영 등 부분별로 나눠서 열리며 참여마당은 도자기 공예, 페이스페인팅, 좋은 글 써주기, 전통목각관 시연 및 서각체험, 종이공예 등이 다양하게 펼쳐져 점진적인 종합축제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회 후에는 사계권위자를 심사위원 위촉하여 엄격히 심사하고 각 부문에서 입선한 사람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주어지며, 수상작품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시상상은 백일장의 경우 장원, 차상, 차하, 장려, 입선으로 구분해 시상하며, 사생, 서예, 사진촬영 부문은 최우수, 우수, 특선, 입선 등으로 시상한다. 대회참가자는 오전 9시 40분까지 입장을 완료해야 하며,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고 입선작품은 작품집을 발간한 후 입선 등위를 날인하여 반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문화원(☎532-5015, 5055)으로 문의.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내고장 문화유적은 무엇이 있나요?” 21일 한민족제

### 포천문화원 청소년 문화유적답사 실시



포천문화원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12개교 4470여명의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문화유적답사를 실시한다.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12개교 4470여명의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문화유적답사를 실시한다. 이번 답사는 자녀는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내고장의 문화유적을 바로알고 교유의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역사의 재조명과 자긍심 고취 등 가족단위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배가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문화유산해설사의 자세한 설명으로 관내 유적지인 충무단을 비롯 화산서원, 고인돌, 육사생도 참전기념비, 포천향교, 청성공원,

인평대군지체문비, 용연서원 등 고장의 문화재를 비롯 명현과 석화, 충·효·열 인물과 의병 활동으로 순국하신 우국충정의 고귀한 정신 등을 배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답사 후에는 소감을 받아 시상할 계획이다. 한편 포천문화원에서는 앞으로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과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좋은 책 읽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전문직인 초청한 문화특강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선진 문화의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김명복 기자 best114@paran.com

###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31)

## 암행어사 정만석(鄭晩錫)

암행어사 정만석은 호남지방에 암행어사로 여러차례 나아가 탐관오리를 처단하였으며 3년간의 임행 감사를 하였다.(1795년, 정조 19년) 또 경상남도 암행어사로 나아가 경상남도 지방의 부조리를 일소하였으며 선정을 베풀어 그 이름이 높았다. 동래부사 당시에는 쓰시마(대마도) 통신문서를 위조한 것을 밝혀 통역관을 죽인 명사도였다.(1803년, 순조 3년) 숙헌공(肅獻公) 정만석은 조선조 상신으로 순조때의 명판관이자, 외교관이자, 선정을 하는 지방관이자 명재상으로 조선시대를 통해 내외적을 끝으로 두루 거친 시인이자

청렴한 선비였다(1758~1834). 자는 성보(成甫) 호는 파제(過齋)·죽간(竹間) 본관은 운양이다. 종조3년 생원이 되고 정조7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자여도 활방, 전적, 사헌부 지평(정조18년) 영일현감(정조 22년)이 되었다. 영일현감 당시, 6괘(六弊)를 소진(所禪)한 바는 유명하다.(여섯 가지 나쁜 점을 모두 없앴) 홍문관교리(순조 1년) 사간원 정언(순조 1년) 등 8월 서장관으로 청에 다녀왔다. 순조3년 동래부사, 이어 도총부부총관, 형조참판, 좌우승지, 한성부윤(순조 7년)을 거쳐 충청도 관찰사, 경상도 관찰사(순조 9년)를 지냈으며 공조참판이 되

었다. 홍경래 난리 시는 관서위무사(순조11년)로 나갔으며 난을 수습하고 평안도 관찰사가 되었다. 대 피폐된 민생을 수습함에 헌민들이 생사당(生祠堂)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감사와 존경의 제사를 드리는 사당)을 건립하였으니 잘 만석님이 얼마나 민심수습을 잘 했나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같은 해 호조판서, 순조18년 형조판서, 같은해 동지정사(冬至正史 : 매년 동짓날 즈음 중국에 가서 외교특사를 하며 무역도 하는 최고의 외교관직)로 갔다가 이듬해 돌아온다. 같은 해 3월 광주유수, 병조판서(순조 20년) 이듬해 3월 한성판윤(현 : 서울특별시, 장관) 왕대비 승하시 국장도감제

조, 산릉도감제조를 겸임하였다. 순조22년 판의금부사, 순조29년에는 우의정을 끝으로 중추부사가 되었는데 순조 34년 77세를 일기로 돌아갔다. 우리는 순조, 정조임금의 총애를 받고 청렴하였으며, 요직을 두루 거친 성정이 바른 행정가였음을 알 수 있다. 생원시, 문과급제, 활방, 전적, 지평, 현감, 교리, 정언, 서장관, 부사, 도총부부총관, 형조참판, 좌우 승지, 한성부윤, 경상총청 관찰사, 호조판서, 형조판서, 동지정사, 광주유수, 병조판서, 국장도감제조, 판의금부사, 호조공조판서 우의정 중추부사 등을 역임하고 중추원관중추부사로 퇴임하였으나 남의 화려한 관직과 두터웠던 정조, 순조 임금의 신임을 받았던 충신이자 청렴한 선비였으며 시문(詩文)에도 능한 인물이었다. 서울에서 출생 성장하였으나 노래(老來)에는 포천 가산면에서 살다가 물었다. 사적 제14호로 그의 묘가 보존되어 명성 높았던 암행어사의 과거를 말해주고 있다. 필자연락처 02-932-2434